

##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대전! ‘과학수도 업그레이드, 지역균형발전의 심장 대전’ 이재명이 합니다.

### 대전 7대 공약

- |   |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추진</li><li>② 바이오 특화 창업 기반 구축</li><li>③ 우주국방혁신 전진기지 구축</li><li>④ ‘보훈가족들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’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⑤ 경부선·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대전조차장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</li><li>⑥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</li><li>⑦ 청(廳) 단위 등 중앙행정기관 대전정부청사 집적</li></ul> |
|---|--|

-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인 과학수도 대전을 업그레이드 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,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꾸기 위한 7대 대전 공약을 발표했다.
- 이재명 후보는 “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50년이 됐다. 지난 50년간 대전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, 대전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대한민국의 길이 됐다. 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”이라며 국가경쟁력의 심장인 대전의 역할을 강조했다.
- 이 후보는 “새로운 시대, 국내를 넘어 글로벌 대전으로 도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덕특구의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,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”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7대 대전발전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.

○ 첫째 ‘대덕특구 재창조 사업’ 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.

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50년,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대전은 이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, ▲첨단 신기술 실증 단지조성과 ▲기술 융·복합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점으로, 대전주도 혁신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둘째 ‘바이오특화 창업기반 구축’ 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
대전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장비, 인력 등이 집적돼 바이오 창업 역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급성장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이 후보는 ▲대전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자원을 연계한 바이오 특화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▲바이오혁신 플랫폼 구축 ▲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으로 급성장하는 융·복합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.

○ 셋째 ‘우주국방 혁신 전진기지 구축’ 으로 대전을 우주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겠습니다.

명실상부하게 우주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, KAIST, 국방과학연구원 등이 집적돼 있어 국가 우주개발의 핵심가치를 실현을 할 수 있는 최적화 된 곳이라며 ▲대전을 우주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 및 미래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허브로 육성하고 ▲우주국방 특성화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 산단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.

○ 넷째, ‘보훈가족들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’ 으로 문화 치유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.

현충원은 아픈 역사를 품은 엄숙한 추모 공간이었지만 대전 현충원을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▲메모리얼 광장 조성 ▲ICT체험관 건립 ▲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해 인근 군인휴양시설·유성온천 등과 연계해 국가 대표 기념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.

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‘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’ 이라 불리는 동구산내 골령골 ‘평화공원 조성 사업’ 도 적극 지원해, 과거사 치유를 통해 국민화합에 힘 쓰겠다고도 강조했다.

○ 다섯째, ‘경부선·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대전조차장 레일스카이 복합단지’ 를 조성 하겠습니다.

경부선과 호남선이 통과하는 대전은 20세기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철도로 인해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이 단절돼 효율적인 소통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‘21세기 통합 대전’ 을 위해, ▲경부선·호남선 지하화로 낙후된 도심지역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, 기능이 축소된 신탄진 조차장부지에는 ▲레일스카이 복합단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등 주거복합단지조성으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.

○ 여섯째 ‘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’ 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.

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외곽도로·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 간 접근성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▲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 조기 건설, ▲호남고속도로 회덕JCT에서 서대전JCT구간 지선확장, ▲충남(보령)-대전-충북(보은) 고속도로를 건설하고, 지역 간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처리 할 수 있는 순환도로 기능의 광역고속망인 ▲대전-세종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.

○ 일곱째 청(廳)단위 등 중앙행정기관 대전정부청사 집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.

지난 30년간 정부 대전청사는 대전의 발전을 함께 하며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 중소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도심의 공동화 우려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재배치 논의가 필요하다며 ▲신설되는 ‘청’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입지토록 하고, ▲중기부 대체 이전기관인 기상청,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, 수도권 인구분산과 풍선효과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. //끝.